

아시아이야기 광주에 모인다

문화수도추진단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축' 스토리텔링 본격화

한·중앙아시아 문화·설화 엮은 책 내년 출간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제적인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간 교류협력 체계를 만들고 아시아의 이야기를 한 데 모으는 내용의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15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중앙아시아 문화·설화·영웅 서사시 번역 및 출판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중앙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된다. '아시아 예술커뮤니티'는 아시아 권역별 예술적 특성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간 교류작업을 진행해 아시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되는 한·중앙 아시아 문화·설화 출판사업은 내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의 개최에 맞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한국어, 영어, 일어로 번역·출판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진단은 출판·저술 작업을 통해 아시아의 이야기를 한 데 모은 뒤 이를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3억7천만 인 이상 팔린 '해리포터'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영화, 게임, 캐릭터, 공연 등의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 큰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문화자원 협력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한·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스토리텔링 위원회는 한국과 중앙 아시아 각국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으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신화, 설화, 민속, 예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각국의 대표작품을 선정,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전통예술 커뮤니티 구축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추진단은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등 음악 교류 사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11개국의 전통악기들로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 3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웅장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빛내기도 했다.

추진단은 향후 남아시아(무용), 아랍(영상), 동북아(전통연희)를 아우르는 예술커뮤니티 조성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아시아 음악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가치 '아시아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내년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이 투입된다. 아시아 월드뮤직은 영리권 팝음악을 제외한 각 지역의 대중음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서 각 나라 민속음악을 대중음악과 접목해 현대화한 것이다.

이 행사는 프랑스 상송, 포르투갈 파두, 브라질의 보사노바 등 월드뮤직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 행사를 통해 음원을 발굴해 문화중심도시의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광주의 음원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지난 10월19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베트남위원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 혁명박물관에서 '한국-베트남 우정의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예술을 집약하고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창조하는 원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2014년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문화전당의 콘텐츠 확산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제공)

가계 교육비 환란후 처음으로 줄어

가구 명목 근로소득도 첫 감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환란후 처음으로 교육비 지출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3.2%로 2002년 1분기(3.8%) 이후 7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3분기 속보치의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3분기중 전국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평균

227만6천390원으로 1년전인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도 최근들어 다시 하락하는 등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소득이 줄어들자 가계는 교육비마저 축소하고 있다. 국민소득 통계에서 3분기중 실질 교육비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 환란당시인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계신용(부채) 잔액은 9월말 현재 712조8천억원으로 1년전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났다. 연합뉴스



핑크드림 도서관 개관

'메리 케이 핑크드림 도서관(8호점) 개소식이 최근 광주시 북구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가운데 노재홍 메리케이코리아 대표, 이충로 어린이재단 모금사업본부장 등이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핑크드림 도서관은 화장품 판매 업체인 메리케이사의 사회복지사업으로, 현재 전국에서 8곳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大豊속 쌀 판매 감소 이마트 작년보다 4.5% 줄어

판매가격·순위도 뚝 떨어졌다

쌀밥 위주로 먹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이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대풍작은 쌀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6일 전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126개 이마트 점포에서 판매된 쌀은 모두 10만5천으로, 작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쌀 농사가 잘돼 전체 수확량은 총 491만으로, 평년의

457만에 비해 7.4%나 늘었다.

수요가 주는데 공급량이 늘면서 쌀값은 큰 폭으로 내렸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마트 이맛쌀'(20kg)은 12월 현재 3만6천800원에 팔리고 있다. 작년 같은 시기(4만1천900원)보다 15%나 쌀 가격이

다. 이마트에서 쌀 판매순위로 올 들어 뚝 떨어졌다. 매출기준으로 20kg 들이 쌀은 지난해만 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엔 3위로, 2계단이나 내려앉았다. 10kg 들이 쌀은 35위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계단이나 낮아졌다.

그러나 쌀밥 대신 빵이나 라면, 즉석식품 등을 먹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대용량 쌀보다는 소량 포장으로 판매되는 '즉석 정미'의 판매는 늘었다. 즉석정미는 이마트에서 판매순위가 49위로 지난해에 비해 16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정미는 현미쌀을 껍질은 제거하고 수에 따라 밥맛을 조절할 수 있어 웰빙식단을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오염물질 배출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환경부 '성과 기준 방식 규제 선진화 방안' 추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기업 프렌들리'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이는 정부가 대기와 수질 분야 환경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시설 입지나 관리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과 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 및 과정상 환경규제가 성과기준 환경규제와 중복되고 경제성, 심리적 부담도 크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울산,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유용 다목적 첨가제

소액 자본금 투자로 확실한 고소득 창출

Sabra

시브라특성:
- 순수 식물성 바미오 원료에서 유래한 인조첨가제 무첨가
- 세정력이 높아 엔진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아 엔진 성능이 우수하며
- 점도저감 효과가 우수하다.
- 무색무취 특성을 가진 친환경 첨가제이다.
- 소액투자 가능
-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 5년 내 수익률 100% 달성
● 1인 100만원

광주·전남·시·군 판매점 선착순 모집 사업 동참 하실분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동 141-111 (보명빌딩 1111호)
· 광주전남 총 대리점 ☎ 062-523-1006
FAX 062-515-5657
H.P 010-4010-3921